

2013년도 국외연수 보고서

❁ 기 간 : 2013. 3. 6~3. 13(5박 8일)
❁ 연수단 : 18명(의원 11, 사무국 7)
❁ 연수국 : 터키



서대문구의회

목 차

I . 연수개요	1면
II . 연수일정	2면
III. 연수국 소개	
1. 일반현황	3면
2. 정치제도	4면
3. 지방행정제도	5면
가. 지방행정체계	5면
나. 지방의회구성	5면
4. 지리와 기후	6면
5. 문화	8면
IV. 주요방문지 소개	
1. 에페스(하드리아누스신전, 셀수스도서관)	10면
2. 파묵칼레(히에라폴리스)	12면
3. 안탈리아(하드리아누스문,이블리탑)	14면
4. 캐르반사라이	15면
5. 콘야대평원	15면
6. 메블라나박물관	16면
7. 지하도시 카이막클르	17면
8. 카파도키아(괴메레,우치히사르,파샤바)	18면
9. 그랜드바자르	20면
10. 히포드롬,아야소피아대성당,블루모스크,툽카프궁전	21면
11. 이스탄불 시설리구의회	24면
V. 연수후기	27면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터키 지방자치제도 운영 현황 및 우수 정책 사례 벤치마킹
- 문화자원 관리 현장과 전통시장 견학 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

2. 연수기간 : 2013. 3. 6 ~ 3. 13(5박 8일)

3. 연수국가 : 터키

4. 연수단 구성 : 총 18명(의원 11명, 사무국 7명)

5. 주요방문지

- 이스탄불 : 시실리구의회, 그랜드바자르 전통시장, 성소피아사원
- 카파도키아 : 괴뢰메 야외박물관, 우치사르, 지하도시 데린구유
- 안탈리아 : 카라알리올루 공원, 이블리 탑, 하드리아누스의 문
- 파묵칼레 : 히에라폴리스 유적, 셀시우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신전
- 콘 야 : 메블라나 박물관

6. 연수자 명단

연번	소속(직위)	성 명	연번	소속(직위)	성 명
1	의장	변 녹 진	10	재건위(위원)	홍 길 식
2	부의장	오 성 자	11	재건위(위원)	이 기 돈
3	행복위(위원장)	김 영 원	12	사무국(의정홍보팀장)	권 오 상
4	운영위(위원장)	김 재 관	13	사무국(의사팀장)	권 기 영
5	운영위(부위원장)	윤 유 현	14	사무국(주무관)	조 영 술
6	재건위(위원장)	김 호 진	15	사무국(주무관)	이 용 식
7	재건위(부위원장)	김 다 순	16	사무국(주무관)	김 상 원
8	재건위(위원)	류 상 호	17	사무국(주무관)	장 혜 경
9	재건위(위원)	이 문 복	18	사무국(주무관)	곽 원 주

II 연수 일정

일 자	국 가 (도시)	교통편	시간	주요 연수내용	비고
제1일 3/6(수)	인 천	TK091	23:55	인천국제공항 출발	
제2일 3/7(목)	이스탄불 이즈미르 에페스	TK2312 전용버스	05:00 08:00 09:05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도착 이스탄불 → 이즈미르 이즈미르 공항 도착 후 에페스로 이동 (로마시대 원형극장, 셀수스도서관, 하드리아 누스 신전, 쉬린제 마을 견학) 에페스 → 파묵칼레로 이동	
제3일 3/8(금)	파묵칼레 안탈리아	전용버스	전일	파묵칼레 견학 (목화의성, 히에라폴리스 견학) 파묵칼레 → 안탈리아로 이동 KARAALIOGLU PARK 견학 (하드리안 문, 아블리미나렛 등 견학)	
제4일 3/9(토)	안탈리아 시데 콘야	전용버스	전일	안탈리아 → 시데로 이동 (아폴론신전, 원형극장 유적 견학) 시데 → 콘야로 이동 (메블라나 박물관 견학)	
제5일 3/10(일)	콘야 카파도키야	전용버스	전일	콘야 출발 → 악사라이 경유 악사라이 → 카파도키야 이동 네브셰히르 시청 방문 (괴뢰메 파노라마, 우차히사르 등 견학)	
제6일 3/11(월)	카파도키야 카이세리 이스탄불	전용버스 TK2011	09:15 10:45	카파도키야 → 카이세리 카이세리공항 → 이스탄불로 이동 (성소피아성당, 블루모스크 등 견학)	
제7일 3/12(화)	이스탄불	전용버스	전일	이스탄불 견학 터키 시실리구의회 방문 그랜드바자르 방문	
제8일 3/13(수)	이스탄불 인천	TK090	00:55 18:05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III 연수국(터키=TURKEY) 소개

1. 일반현황

터키는 중동과 아시아,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수도는 앙카라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3.5배, 남한의 7.8배에 달하며 지리적으로 동쪽은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이란과 남쪽은 이라크, 시리아와 지중해, 서쪽은 에게해, 그리스 및 불가리아 그리고 북쪽은 흑해와 접경하고 있다.

지형은 북부에는 흑해와 평행을 이루는 산맥이 있으며, 남부에는 토로스 산맥이 해안을 따라서 비옥한 평지로 연결되어 있다.

세계 4대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유명한 유프라테스강(2,781km)과 티그리스강(1,850km)이 동부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발원하여 이라크를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간다. 15개의 강과 함께 호수도 많으며 그 중에서도 반(Van) 호수는 면적 3,713km², 둘레 430km로 내해에 필적할 정도이다.

기후는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온난한 흑해 연안, 내륙은 대륙성 기후 그리고 해안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중해와 에게해 연안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서 여름은 고온건조하며, 겨울은 온화다습하다(연평균 18~20℃). 흑해연안은 연중 고른 강우량과 함께 기온의 일교차도 거의 없다(연평균 22~24℃).

인구는 7,472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4배로서 70%이상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인구 증가율은 1.3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5세 이하의 젊은층이다. 민족구성은 터키족 (76.0%), 쿠르드족 (15.7%), 기타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유대인 등 (8.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의 98%가 이슬람교(대부분 수니파)를 믿으며 종교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1923년 종교의 자유를 발표함으로써 이슬람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였다.



터키 거주 교민 수는 약 3,000명으로 이중 70%가량이 이스탄불에 거주한다.

한국-터키 양국간 교역은 90년 이후 연평균 15%가 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97년에는 11억 달러대의 교역량을 기록하였으나 98년 터키 경제 불황과 한국의 IMF 사태의 영향으로 양국 간 수입수요가 냉각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2011년에는 61억달러(수출 51, 수입10)로 증가했다. 2011년 기준 터키는 한국의 수출대상 21위국이며, 54위 수입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 등이며 수입 품목은 농산물, 철강 제품, 비금속광산, 수산물, 섬유제품 순이다.

특히 한국과 터키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활발한 편으로 서울, 부산,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시 등 3곳의 기초자치단체가 터키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13년에는 터키에서 ‘이스탄불-경주세계 문화엑스포 2013’ 공동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

- 공식국명 : 터키 공화국 (Türkiye Cumhuriyeti, Republic of Turkey)
- 수 도 : 앙카라
- 인 구 : 7,472만명
- 면 적 : 779,452km²
- 언 어 : 터키어(Turkish), 일부 쿠르드어(Kurdish) 및 아랍어
- 종 교 : 이슬람교 (98%) - 헌법상 정교 분리
- 경제현황
 - 전체 GDP : 7,354억달러
 - 1인당 GDP : 10,916달러
 - 한국-터키 교역규모 : 61억달러

2. 정치제도

터키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로서, 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권적 대통령제를 병행하고 있다. 국회는 5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제로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터키 대통령은 7년 단임이며,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선출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동안 자신을 지지했던 정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후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터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내각 책임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

통령이 국회 연설권, 국회 소집권, 법령 공포권 및 법령 재심의 요구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회부권, 각료회의와 국가안보회의의 주재, 고위관리 임명 최종 승인권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터키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내각 책임제라고 볼 수 있다.

3. 지방행정제도

가. 지방행정 체계

터키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81개 州(Province)와 695개 郡(District), 35,855개 面(Sub-District)으로 나누었으며, 州知事와 郡守 및 面長은 내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터키의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각 州에는 주지사를 長으로 하는 민선 주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으며, 인구 2천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되는 市(Municipality)는 전국적으로 1,984개가 있고, 각 시에는 민선 시장과 시의회가 있다.

o 이밖에 전국적으로 34,974개의 里(Village)가 있으며, 里長(Headman)과 里議會(Concil of Elders) 의원은 민選으로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 가운데에서 선출함. 시에는 洞이 있으며, 洞長 또한 민선이다.

나. 지방의회의 구성

터키의 지방의회는 주의회와 시의회, 빌리지 의회가 있다. 주의회와 시의회 의원은 투표권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빌리지 의회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다.

1) 빌리지(Village)

빌리지 의회(Council of Elders)는 직접민주주의 예로서 모든 지역유권자로 구성된다. 빌리지 의회는 특정한 행정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면 법규정에 의해서 선택적이라고 규정된 특정한 세금에 관해서 만약 빌리지 의회가 의무적이라고 결정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빌리지 집행위원회는 선출직 위원과 비선출직(당연직)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 수는 8명에서 12명 사이로 빌리지의 주민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비선출직 위원은 빌리지의 학교 교장과 신앙심이 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빌리지 대표의 지출을 감독

하고 예산을 결정하며, 빌리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한다. 또한 부과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 등을 수행한다.

빌리지의 장은 “Muhtar”라 칭하며 공무원중 빌리지 의회에서 선출한다. 빌리지의 장은 정부사업과 지역사업에 관여한다.

2) 시(Municipality)

시의회 의원은 5년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의 수는 각 시의 인구수에 따라서 9명에서 55명으로 이루어진다.

시 집행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 의원들과 시청 공무원중에서 구성된다. 시의원 수는 2명이상으로 하되 시청 공무원 수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시 의회의 의원이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세 번 연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면직대상이 된다.

시장은 5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시장은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에 입 후보하나 일단 시장으로 당선되면 소속 정당의 행정적인 직위는 사임해야 한다.

시장과 시 집행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최종 발언권이 있는 시 의회가 우선권을 갖는다. 시장이나 시 집행위원회가 의회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주지사에게 해결방안을 요청한다. 그럴 때, 최종 결정은 주지사가 담당하는 행정의회와 최고행정기관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무회의는 결정하기 전에 주지사를 통해 분과위원회의 견해를 듣도록 하고 있다.

3) 주(Special provincial administrations)

주의 의결기관은 주 의회이다. 주 의회 의원은 직접 선거에 의해 5년마다 선출한다.

주지사는 주 정부의 정치적 책임자이며, 정부대표이다. 주지사는 각료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한다. 주지사는 병무와 사법 행정을 제외한 중앙정부 관련업무 외에 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을 포함 하여 주 정부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지사는 시의회의 지역예산 수정과 승인 등을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지사의 감독은 지역의회 결정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정된다. 주지사는 주 의회에 연간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주 의회가 2/3의 투표로 불만을 표시하면 주지사는 내무부 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지리와 기후

터키는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이다. 아시아 쪽 터키 영토(주로 아나

톨리아로 구성)은 국토의 97%를 차지하며, 보스포로스 해협, 마르마라 해, 다르다넬스 해협(흑해와 지중해를 이어준다)을 끼고 있는 유럽 쪽 터키 영토는 국토의 3%에 불과하다.

터키의 영토는 길이로는 1,600km, 폭 800km에 이르며, 대체로 직사각형 모양이다. 호수를 포함해 터키의 육지 면적은 783,562km²이며, 아시아 대륙에 속하는 영토는 755,688km²이고, 유럽 대륙에 속한 영토는 23,764km²이다.

터키는 세계에서 37번째로 넓은 나라이며, 프랑스 본토와 영국 영토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이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는데, 서쪽에는 에게해, 북쪽에는 흑해, 남쪽에는 지중해가 있다. 또 북서쪽으로는 마르마라해가 있다.

터키의 유럽 영토인 동부 트라키아는 그리스와 불가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아시아 쪽 영토인 아나톨리아(소아시아)는 중앙에 고원 지대와 좁은 해안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이로 북쪽에는 키프로루 산맥과 도우 산맥(폰토스 산맥)이, 남쪽에는 토로스 산맥(타우루스 산맥)이 뻗어 있다. 동부 터키는 산악 지형이 더욱 발달되어 있으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아라스 강 등 여러 강의 수원지이고, 반 호와 터키 최고봉 아라라트 산(높이 5,165m)이 있다.

터키는 7개의 인구조사용 지역으로 나뉘는데, 마르마라 지역, 에게 해 지역, 흑해 지역, 중부 아나톨리아 지역,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 남동부 아나톨리아 지역, 지중해 지역이 바로 그것이다. 흑해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 북부 아나톨리아의 울퉁불퉁한 지형은 길고 좁은 띠 모양이다. 이 지역은 터키 총 면적의 1/6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아나톨리아 내륙 고원은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형이 험해진다.

터키의 다양한 경관은 복잡한 지각 운동의 산물로, 오랜 세월동안 이 땅을 형성하였으며, 상당히 잦은 지진과 이따금 일어나는 화산 분출로 지금도 그 영향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보스포로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은 오늘날의 흑해를 형성한 터키의 단층선 때문에 생겨났다. 국토 북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지진 단층선 때문에 1999년에 대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지중해와 접하고 있는 터키의 해안 지방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보여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한랭 습윤 및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건조한 내륙

지역은 기후가 훨씬 혹독하다. 해안과 가까운 산맥 때문에 터키 내륙은 계절차가 대단히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 고원의 겨울은 특히나 춥다. 동부의 산악 지방에서는 기온이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며, 연중 120일간 지표에 눈이 남기도 한다. 서부의 겨울 기온은 평균 영하 1도이다.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기온은 보통 낮에 30도 이상이다. 연중 강수량은 평균 400mm로, 고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건조한 지역은 코니아 평야와 말라티아 평야로, 이 곳의 연중 강수량은 대개 300mm 이하이다. 가장 습윤한 달은 5월이며, 가장 건조한 달은 7월과 8월로, 연수단이 방문했을 때는 현재의 우리나라 날씨와 비슷한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의 날씨로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날씨였다.

4. 문화

돌마바흐체 궁전의 입구 중 한 곳. 터키는 오우즈 튀르크, 아나톨리아인, 오스만 제국(이 나라 자체도 그리스-로마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연장이다), 그리고 탄지마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서구 문화와 전통이 혼합되어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였다. 원래 이러한 문화 혼합은 터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이주할 때 여러 민족들과 접촉하면서 생겨났다.

터키는 종교적인 옛 오스만 제국에서 강력한 정교 분리 정책을 견지한 근대 국가로 변모하였으며, 예술 표현의 방식 역시 다양해졌다. 공화정 초기에 터키 정부는 박물관, 극장, 오페라 공연장, 건축 등 순수 예술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였다. 다양한 역사적 요소는 터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하다. 터키 문화는 "근대" 서구식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 종교와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

터키 음악과 문학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 혼합의 좋은 사례인데,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세계 및 유럽 세계와 상호 작용하면서 오늘날 터키의 음악과 문학에 터키, 이슬람, 유럽이 섞였기 때문이다. 터키 문학은 오스만 제국 시대에는 대개 페르시아 문학과 아랍 문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스만 말기에 중 특히 탄지마트 이후에는 터키 민속 문화와 유럽 문예 전통이 점차 강해졌다. 가령 문화적 영향의 혼합은 "문화의 충돌과 뒤섞임의 새로운 상징"이라는 형태로 극화하여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르한 파무크의 책과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터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요소 역시 수 백년간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친 여러 전통의 독특한 혼합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비잔티움 건축과 후대의 오스만 건축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터키 도처에 남아있으며, 여기에 지역과 이슬람 전통이 절묘하게 섞여있다.

시난은 오스만 건축의 위대한 고전기 건축가로 널리 평가받는다. 18세기부터 터키 건축은 점차 서양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게 되어, 특히 이스탄불에서는 돌마바흐체 궁전이나 츠라안 궁전과 같은 건축물들이 수많은 현대식 마천루와 함께 하나의 도시 경관을 이루어 상이한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IV 주요 방문지 소개

◆ 에페소스(Ephesos)

에페소스(Ephesos)는 이스탄불에서 남서쪽으로 336km 떨어진 이즈미르(Izmir) 주의 셀чук(Selcuk)에 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티메스 신전을 중심으로 오랜기간 번영을 자랑한 고대도시 에페소스, 아나톨리아에서 유적 하나만 본다면 단연 에페소스 유적이 꼽힐 정도다. 이곳의 장대한 스케일, 화려함, 수많은 유물, 역사는 흘렸어도 도시가 멸망한 슬픔보다 옛날의 화려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역사에서 Ephesus의 이름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기원전 13세기경의 Hittite (성경의 헷족속)비문인데, 그 문에 Apasas라고 불렸던 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다. 기원 후 1세기에 에베소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도시중의 하나가 되었다. 37~42년 사이에 기독교 전도에 주력하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게 되자 사도바울은 그의 2차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여 선교를 벌이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

또한, 사도요한도 그리스도로부터 성모마리아를 돌 볼 임무를 부여받고, 성모마리아와 함께 에베소에 와서 살면서 말년을 보냈다. 64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밖에서 순교 당하자, 요한은 그를 대신해서 에베소의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다. 요한은 노구를 이끌고 버가모, 서머나 등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로마로 끌려가 고문을 당한 후 지중해 연안의 밧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다. 요한은 이곳에서 계시록을 썼다. 로마황제 Domitian이 피살당하자, 요한도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와 요한복음을 썼다.

그 후, 요한은 자신의 뜻에 따라 에베소에 묻혔으며, 비잔틴 제국시대에 그의 무덤이 있는 자리에 [사도 요한의 교회]가 세워졌다. 7-8세기에 들어와 에베소는 다른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랍인의 침략을 감수해야 했으며, 결국 1304년에는 터키 수중에 떨어졌다.

《하드리아누스 신전》

크레테스 도로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 건물은 138년에 지어져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다. 건물의 현관 입구에 4개의 기둥이 남아 있는데 중앙의 2개 기둥은 아치를 이루고 있다. 현관을 들어서 안쪽 전면의 박공 머리에는 메두사를 닮은 여성의 모습이 나뭇잎과 함께 부조 되어 있고, 그 아래 왼쪽부터 아테네 여신, 셀레나신, 미상의 한 남자, 아폴로신, 미상의 한 여자, 에페소스의 창시자 안드로클로스, 헤랄테스,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아버지, 데오도시우스 황제, 아르테미그 여신, 데오도시우스의 아내와 아들이 차례로 부조 되어 있다.



〈하드리아누스 신전〉



〈신전 앞 에페소스의 거리〉

《셀수스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은 에페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한다. 이 건물은 AD 135년 줄리우스 아퀼라가 소아시아 집정관이었던 그의 아버지 셀수스를 기리기 위해 지었다.



〈셀수스 도서관 앞 연수단〉

대리석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2층 도서관 건물은 조각 장식이 매력적이다. 하부층은 코린트와 이오니아식이 결합되어 있고, 상층부는 코린트식의 대리석 기둥이 바치고 있다. 로마제국 시절에는 한때 1만 2천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야외 대극장》

피온산 기슭의 비탈을 이용해 건설된 이 극장은 리시마쿠스 시대에 지어졌으며 오늘날의 모습은 트라얀 황제시의 모습이다. 따라서 로마-그리스 타입으로 무척 아름다운 극장의 표본이 되겠다. 고대 극장이 모두 그러하듯이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약 18m 높이의 무대 정면 건물은 3층으로 되어있고 각종 부조와 조각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극장이다.



〈야외 대극장에서 설명을 듣는 연수단〉

약 40m 지름의 중앙 무대는 정교한 음향적 구조로 되어 있다. 관중석은 외곽까지 150m의 크기이며 약 25천명 까지 수용 가능한 극장으로 마이크 없이도 관중석 끝까지 육성이 잘 들렸으며, 이곳은 기독교 역사에도 아주 의미 깊은 곳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에페소스의 은세공장이들로 부터 수난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 파묵칼레(Pamukkale)

이즈미르에서 남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곳에 데니즐리라는 큰 도시가 있다. 다시 데니즐리에서 17Km 정도 가면 지면이 완전히 눈으로 덮인 듯한 언덕 하나가 나타난다. 사실 이것은 눈이 덮인 것이 아니라 칼슘이 풍부한 온천수에 의해 이루어진 자연의 대 작품이다.

이 곳이 바로 터키인들이 목화성이라는 뜻의 '파묵칼레'라고 이름 붙인 고대 히에라폴리스이다. 산 위에서 수 천년을 두고 흘러내린 칼슘성분의 온천수는 산비탈을 온통 순백의 바위로 뒤덮게 했으며 층층이 테라스 모양의 천연 욕조를 만들어 놓아 대 장관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온천수는 질병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수 천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곳곳에 자생하고 양귀비 빛깔이 너무 고운 곳이다.

《히에라폴리스》

파묵칼레에 있는 페허의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기원전 190년경에 페르가몬 왕국의 에우메네스가 세운 것으로 이 도시의 이름은 왕가의 시조인 텔레포스의 부인이었던 ‘히에로’또는 ‘히에라’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천 외에 구리세공과 양모산업, 카펫산업, 염색공업, 대리석산지로 유명했던 이곳은 비잔틴 온 시대에 번영을 누려 유스티니아노스 황제 치세인 6세기에는 대교구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나, 그 뒤 아랍인과 터키인의 공격을 받으면서 쇠퇴기에 접어든다.



〈수천년 흘러내린 석회붕〉



〈히에라폴리스 유적〉

《자생하는 양귀비》

유적지 곳곳에 자생하고 양귀비의 빨간 자태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꽃이나 자생하는 꽃은 마약성분 자체가 미미하여 국가에서도 금기시 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꽃을 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할 뿐, 자연 속에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도록 두고 있었다.



〈유적지 곳곳에 자생하는 양귀비〉

◆ 안탈라(Antalya)

푸른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요트가 오가는 항구의 풍경이 특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구시가인 칼레이치에는 많은 오스만 시절 가옥이 정취 있는 숙소로 그 모습을 바꾸었다.

《안탈라 항구》

B.C 2세기 초 페르가몬 왕 앗타로스 2세가 이 지역으로 침입해 왔을 때 당시 양항(良港)으로 이름 높았던 시대를 공략하지 못하고 항구도시 이탈리아를 건설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안탈라로 항구 도시를 이루었다.



페르가몬이 로마에 위양되어 2~3세기에는 이탈리아가 더욱 번영하였으나, 비잔틴 시대에는 쇠퇴하였다. 셀주크 몽골 등의 지배를 거쳐 1391년 무라트 1세 때 오스만 터키에 편입된 항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 바다가 인상적이다.

《하드리아누스 문(hadrianus Kapisi)》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문으로 130년에 로마의 하드리누스 황제의 통치(재위 117~138년)를 기념하여 만든 문이다. 이 문이 현재의 지면보다 3m 정도 낮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칼레이치(구 시가)의 땅 아래에 로마의 도시 유적이 묻혀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드리아누스 문〉

《이블리 탑(Yivli Minare)》



〈이블리 탑〉

13세기 초에 셀주크가 세운 자미에 부속된 것으로 이블리는 “틈이 있는”이라는 뜻이다. 이블리 탑은 안탈라 항구 도시의 상징으로 적갈색 느낌의 시계탑이자 첨탑이다.

◆ 캐르반사라이(Karvansaray)

실크로드를 오가던 대상들의 하루 이동거리는 30킬로미터에서 40킬로미터 정도로 예전 실크로드를 경영하던 지배자들은 30~40km마다 대상들이 머물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목욕탕, 식당과 같은 편의시설을 지어 대상들의 왕래를 부추겼다. 이런 시설을 “카라반사라이”라고 부른다.



〈요새 같은 캐르반사라이〉

마치 요새와 같이 성곽 모양을 한 건축물을 지은 것은 셀죽터키 제국의 ‘카이쿠바드 1세’술탄이 다스리던 1229년이였다. 그 뒤 큰 불이 나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대상들을 위해 ‘카이쿠스라우 3세’술탄은 1278년에 확장하여 재건하였다.

◆ 콘야(Konya)

콘야는 서 아나톨리아의 내륙 평야에 위치한 터키 최대 도시 중하나로 18,000년 전에는 호수였다가 1만년 후 호수가 말라 기름진 평원이 되었다. 주산업은 알루미늄, 크롬, 섬유, 설탕, 시멘트이다. 농업의90%가 곡식, 설탕무우, 사과이다. 로마시대 ‘콘야’의 이름은 ‘이코니움’이라 불리었다. 한 때 셀주크 터키의 수도였으며 메블라나 무덤이 이곳에 있어 모슬렘들에겐 중요한 장소이다. BC 334 -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였고 후에 리시마쿠스 장군 차지하였다가 셀레우쿠스 정권에 이어 버가모 왕국이 차지하였다. 버가모가 자신의 국가를 로마에게 넘겨 줌으로 BC 133년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11세기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코니아를 수도로 삼아 셀주크 왕국을 세우고 13세기 이슬람 신비주의자 메블라나 루미가 여기에서 메블라나 신비주의 종파를 창시한다.

《콘야(Konya) 대평원》

터키는 60~70%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콘야 지방은 대평원으로 유명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바다 같은 평야를 이루고 있고 차로 3시간 이상 달려야 끝이 날 정도로 넓은 면적에 대부분이 밀밭을 이루고 있다. 가끔 소·양이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휴경지 또한 많다. 그러함에도 워낙 넓은 면적에 재배되는 밀은 100% 자급자족은 물론 이웃 중동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콘야 대평원〉

《메블라나 박물관》

수피즘 신비주의 교단의 지도자 ‘메블라나 루미’의 무덤이 있는 메블라나 박물관은 원래 셀죽터키 제국의 술탄 알라딘 케이쿠바드 1세가 장미정원이었던 이곳을 1231년에 메블라나 루미의 아버지 무덤으로 제공한 곳이다. 1273년에 메블라나 루미가 죽자 그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아버지 무덤 옆에 묻고 16개의 흙과 초록색 타일로 된 탑이 있는 영묘를 세우고 자신들이 세운 메블레비 데르벤키시 교단의 본부로 삼았다.



〈메블라나 박물관 앞에서〉

박물관에 들어서면 정원 왼쪽에는 수도승들이 교육을 받던 수도원 건물이 있는데 각 방에는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한 밀랍인형들과 함께 당시 수도승들이 쓰던 악기, 망토와 조끼 등의 민속유물들이 진열되어 있다. 정원 건너편에는 메블라나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메블라나 튀르베시’가 있다. 모두 65개의 관이 안치되어 있는데 루미의 아버지와 장로들의 무덤, 부인과 자식 그리고 중급 지위를 가지고 있던 수도승의 관들이다.

영묘를 지나면 예전에 수도승들이 메블레비 춤을 추던 큰 방이 나오는데 이곳은 현재 메블라나 루미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메블레비 춤(세마 춤)》

루미는 음악과 춤을 자신의 내부를 향해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았다. 수도승들은 목소리와 몸짓, 악기를 활용한 정신적 수련과정에서 황홀경을 맛보고 아라와 하나가 된다고 믿었다. 이런 종교적 의식을 위해 메블레비 춤(흔히 세마 춤)을 고안했다. 이 춤은 이승의 삶을 포기하고 신과 신비로이 합일해 다시 태어는 것을 상징한다.



〈메블레비 춤〉

이 춤을 추는 수도승들은 수의를 상징하는 긴 흰옷을 입고, 그 위에 무덤을 상징하는 ‘후르카’라는 검은 망토를 걸친다. 그리고 머리에는 무덤의 비석을 상징하는 ‘시케’라는 갈색 원통형 모자를 쓴다. 이 모두가 죽음의 상징물들이다.

◆ 지하도시 카이막클르(Kaimakl Underground City)

네브쉐히르에서 남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카이막클르의 넓이는 4평방킬로미터 정도다. 지하 8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도시의 깊이는 40m쯤 되지만, 지금은 지하 20m 깊이인 4층까지만 공개되어 있다. 환기는 수직갱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하1층은 외양간으로 쓰였으며, 외양간의 오른쪽에는 주거공간으로 쓰이던 방들이 들어서 있다. 외양간의 왼쪽에는 언제라도 커다랗고 둥근 돌로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로가 있다. 이 길을 따라 지하2층으로 내려가면 교회에 이르게 된다. 3층은 창고와 포도주 저장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놓인 작업장과 부엌이 있어 지하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다. 지하4층은 저장공간인데 큰 항아리에 곡식과 기름, 포도주 등을 저장한 것 같다. 이렇게 큰 저장공간을 가진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인구가 살았던 것 같다. 학자들은 한창때는 이 지하도시에 2만명 가량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하도시 내부〉

◆ 카파도키아(Kappadokya)

"자연"이라는 이름의 조각가가 이 세상에서 돌도 없는 풍경을 만들어 내고, 여기에 사람도 동참해 조각을 한 곳이다. "요정의 굴뚝"이라 불리는 기암괴석들, 가는 곳 마다 동굴 거주지가 나타난다.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던 크리스트교인들로 인해 이 땅을 괴뢰메(보아서는 안 되는 것)라 불렀다.

《괴뢰메(Göreme National Park)》

이 지역의 평균 고도는 해발 1,000m로서 주변이 높은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분지를 이루고 있다. 즉, 과거에 화산을 분출시킨바 있는 에르지에스(Erciyes 3,900m), 핫산(Hasan 3,200m), 킬류(Gollu 2143m) 등의 높은 산들이 카파도키아를 굽어보고 있다.

수 백만년 전 이 산들은 차례로 용트림을 치며 용암을 분출시켜, 주변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화산에 의해 이루어진 이 지형은 그 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비, 바람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오늘날과 같은 대 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화산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지역이 강도가 약한 사암으로 되어 있었으나, 화산에 의해 그 위로 강도가 강한 검은 용암이 뒤덮여 졌다. 세월의 비, 바람은 강도에 따라 이 지형을 깎고 다듬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수한 경치를 이 카파도키아에 선사한 곳이다.



〈기암으로 이뤄진 괴뢰메〉

이러한 특수한 지형은 인간들에게 손쉽게 지을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해 주었다. 즉, 그들은 이 천연의 바위 속에 있는 약한 사암을 파내기만 하면 훌륭한 집이 되었고,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강도가 강한 용암은 지붕이나 벽이 되어 주었다.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기초공사나 골조공사는 필요 없었던 것이다.

이런 환상적인 기암군(奇巖群)은 전세계에서 오직 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총면적 약 96km²의 계곡 안에는 이런 기묘한 풍경 외에도 뛰어난 벽화가 있는 360여 개의 동굴수도원이 흩어져 있다.

《우치히사르(Uchisar)》

이곳은 60m 높이의 “뽕죽한 성채”를 의미한다. 커다란 바위산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여러 바위산이 모여 있어서 견고한 요새와 같은 분위기가 풍기는 곳으로 마치 왕관 모양이, 혹은 창문이 군데군데 박힌 고층건물처럼 산꼭대기에서 있어서 여행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천연의 요새이기도 한 이곳은 최초로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발견되어 페르시아인, 마케도니아인들에 의해 개발되고 비잔틴인들이 더욱 효용화 시켰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이어서 방어하기 쉬운 이곳은 그 내부의 땅속 수 백m까지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떠 올릴 수 있어 더욱 요긴한 요새가 되었다.

《파샤바(Pasabagi)》

이곳의 파샤바는 머리가 3~4개로 나뉘어 있어서 버섯과 같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 버섯의 갓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딱딱한 현무암으로 아래의 부드러운 음회암과 침식 속도가 달라 생겨났다. 성 시메온이 은둔한 교회가 있기도 하다.



〈버섯 모양의 독특한 기암〉

◆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 Covered Bazaar)

터키어로 '덮여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의 카파르 차르쉬(Kapar Carsi)시장은 아치형 돔 지붕으로 덮인 대형 실내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그랜드 바자르로 알려져 있다.

1455~1461년 술탄 메메드 2세(Mehmed II)의 명에 의해서 건축되었으며 16세기 술탄 술레이만 1세(Suleiman I) 통치 시기의 대대적인 확장을 비롯하여 여러 번의 증·개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인파로 붐비는 바자르 내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실내 시장으로, 현재 60여 개의 미로 같은 통로에 5,000여 개의 상점이 있으며, 2개의 주요 통로 끝에 있는 입구 4개를 포함하여 모두 20여 개의 입구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누루오스마니에 게이트와 베야즈트 게이트이다. 누루오스마니에 게이트의 박공머리에는 의장용무기와 책, 깃발이 새겨져 있는 “카팔르차르식(그랜드 바자르의 터키식 이름)1461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다. 그랜드 바자르는 지금까지 12번의 강진과 9번의 대화재로 소실되었고 재난 때마다 복구되었는데 1894년 지진과 1954년 대화재이후 크게 복구되었다. 시장에는 금·은 세공품을 포함한 각종 보석류, 피혁류, 카펫, 향신료, 형형색색의 도자기와 기념품을 포함한 각종 공예품과 특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비잔틴 시대부터 동서양의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오늘날에는 하루 최소 25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 히포드롬(Hippodrome Square)

로마황제 셉티미우스 세베리우스에 의해 A.D 203년 '비잔티온'에 만들었다. 그 후 콘스탄틴대제에 의해 확장되었다. 당시 경기장의 규모는 폭이 117m 길이 480m에 달했으며 10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한다.

이곳에서는 각종 경기, 황제를 위한 축제 등이 거행되었던 비잔틴 시민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두 차례의 대 학살이 이곳에서 발생 하는 등 슬픈 역사의 비극도 함께 간직하고 있다. 경기장의 중앙 분리대는 '스피나'라 불렸다.

당시 이 스피나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를 비롯한 많은 대리석 및 청동탑이 세워졌으나 지금은 기원전 15세기 이집트에서 만들었다는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479년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들여온 뱀 머리의 오벨리스크, 940년 콘스탄티누스 7세가 만든 콘스탄티누플 오벨리스크가 남아 있다.

여기에서 영화 「벤허」의 유명한 전차경기가 펼쳐지기도 했던 곳이다



〈오벨리스크앞에서〉

◆ 예레바탄 사라이

AD 542년 유스티니아노스 황제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19km 떨어진 초원지대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사용하였다. 길이는 140m, 폭은 70m이며 336개의 모양이 서로 다른 높이 8m기둥들이 4m 간격으로 28개씩 12줄로 서있다. 저수용량은 8만톤에 이른다. 그 모양이 물에 잠긴 궁전 같아서 터키말로 “예레바탄 사라이”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지하저수조〉

◆ **아야소피아 성당(Ayasofya Muzesi) = 아야소피아 박물관**

원래 이름은 아기아 소피아,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이다. 소위 "지혜의 성당 (Church of the Holy Wisdom)"이라 하는 이 건물은, 몇몇 역사학자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이에 하나를 덧붙여 8번째 불가사이로 간주하는데, 당시의 건축 기술로 볼 때 그 처럼 거대한 건물이 그토록 오랜기간 동안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불가사이의 중 하나로 친다고 해도 별 손색이 없을 듯 하다. 사실 이 건물이 지어진 이후 천년이 넘도록 그에 필적할 만한 다른 건물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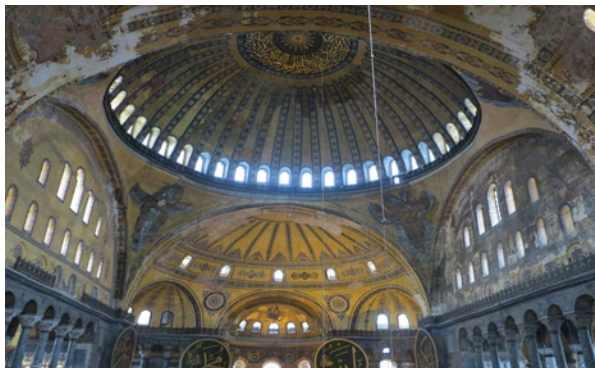
동서양 문명의 공존이라는 이스탄불의 특성을 상징하는 건물은 바로 성소피아 성당이다. 동로마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5년 10개월 동안 장인 100명과 노동자 1만 여 명을 동원해 537년에 드디어 성당을 완공했다. 교회 내의 기둥은 로마제국 곳곳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멀리 이집트에서 온 것도 있었다. 웅장한 돔 양식으로 사방에 침탑이 서 있으며 그리스정교의 본산으로 황제

대관식 등 중요한 행사 장소로 쓰였다.

오스만투르크 제국 시절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모했으나 이슬람교도들은 성당의 원래 구조를 바꾸거나 파손하지 않았고 회칠로 벽화를 가리거나 일부 건축요소만을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 복원을 통해 비잔틴 시대의 벽화와 모자이크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아야소피아 성당 전경〉



〈웅장한 아야소피아 성당 내부〉

성소피아 성당은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밀라노 두오모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 **술탄아흐메드 모스크(Sultan Ahmed Mosque) = 블루 모스크**

터키를 대표하는 사원이며, 사원의 내부가 파란색과 녹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제14대 술탄 아흐메드 1세가 1609년에 짓기 시작하여 1616년에 완공했다. 우뚝 서 있는 첨탑 6개는 술탄의 권력을 상징하며, 이슬람교도가 지키는 1일 5회의 기도를 뜻하기도 한다.

사원 앞 정원에는 언제나 화사한 꽃이 피어 있어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블루 모스크 전경〉

◆ **톱카프 궁전(Topkapi Palace)**

톱카프는 현존하는 오스만제국의 건축술의 가장 광범위하고 훌륭한 기념물인 거대한 궁전이다. 이곳에는 건축술과 역사적인 흥미에 추가하여 박물관으로서 왕족의 소유였던 도자기와 보석, 무기, 원고, 서예품 그리고 많은 예술품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필적할 수 없는 훌륭한 것 들이다.

약 70만 평방m로 궁정, 정자, 모스크 그리고 우물의 복합체이다. 이 곳은 비잔틴 시대의 해안 성벽에 의해 둘러쌓여 있었으므로 이 궁전을 TOPKAPI (CANNON GATE 대포문)라 불렀다. MEHMET 2세는 1453년 이스탄불을 점령, 첫 번째 궁전을 현재의 이스탄불 대학교 술탄마니에 모스크가 있는 지역에 세웠으나, 규모가 적어 1478년 하렘을 제외한 현재의 궁전을 지었다.

톱카프 궁전은 압둘메질 왕이 새로운 궁전으로 옮기기(1843~1856)까지 공식적인 왕의 저택으로, 왕국의 황금시대에는 4,000~5,000명이 이곳에서 살았다. 이 궁전은 4개의 대 궁정과 하렘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톱카프궁전 내부〉



〈이프타리에 정자〉

◆ 이스탄불 시실리구의회 방문

시실리구는 거주자 40만명, 1일 유동인구 300만명, 1년 총예산 3억달러 규모의 이스탄불시 경제 무역의 중심지로 유럽연합(EU)로 수출되는 농산물을 중재하는 무역회사의 90%이상이 상주하는 곳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시실리구의회는 시실리구 최고의 변화가에 자리한 구청건물 4층에 있었다



〈시실리구의회 앞에서〉

구의회 의장 베디에이시와 구의원 4명(남성 3명, 여성 1명)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본회의장에 입장한 연수단은 각 국 구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답사를 시작으로 터키 지방자치제도 운영현황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의원들 간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기념품 교환 및 기념촬영 순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베디에이시 의장의 환영사》

함께한 시실리구의회 의원 4명(남성 3명, 여성 1명)을 소개하면서 “터키와 한국은 형제의 나라이고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우리는 한국을 제2의 터키로 생각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길 희망한다. 한국이란 말만 들어도 “따뜻한 바람”을 느낀다.



《변녹진 의장의 답사》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여러분의 환영에 감사 드린다. 지난 몇일간 터키의 문화유산을 방문하면서 터키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터키는 우리와 역사적 뿌리를 같이 하며 현재는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짧은 만남이지만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시실리구의회와의 교류가 확대되길 희망한다.



《간담회 질의응답 내용 요약》

1. 의회 구성 및 일반현황

- (1) 의회설치년도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84년
- (2) 의원수 및 임기 : 37명(여성의원 3명) / 5년
 - o 이스탄불시 40개구의의회 평균 의원 수 37명
 - o 시실리구의의회 의장을 포함한 주요간부 3명은이스탄불시의의원직 겸임
- (3) 여성할당제, 비례대표제 없음
- (4) 구의회 정당별 구성
 - o 정의발전당 6명(집권당), 공화인민당 9명(야당), 군소정당·무소속 22명
- (5) 회 기
 - o 정기회 : 매달 월요일 개최(안건 수에 따라 기간 결정)
 - o 임시회 : 수 시
- (6) 시실리구 자치법규 없음 : 수도 앙카라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만함



2. 구정운영 현황

- (1) 청소시스템
 - o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이 아무 봉지에 넣어서 집 밖으로 배출
 - o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 가정에서 음식물 및 재활용 분리배출은 하지 않고 노인들이 집하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노인일자리 제공)

(2) 장애인 복지

o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료 및 이용율은?

- 무료, 장애인 복지시설 인푸라 부족

(3) 재래시장 활성화

o 골목시장 상권화가 잘 되어 있는지?

o 대형마트 입점시 주민들의 반응은?

- 주로 대형마트는 대도시에서 까르프, 이케아 등이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공산품 위주로 상품을 진열하고 1차 상품인 농산품은 진열이 규제되어 있으며 주로 지역 7일장에서 농산품을 구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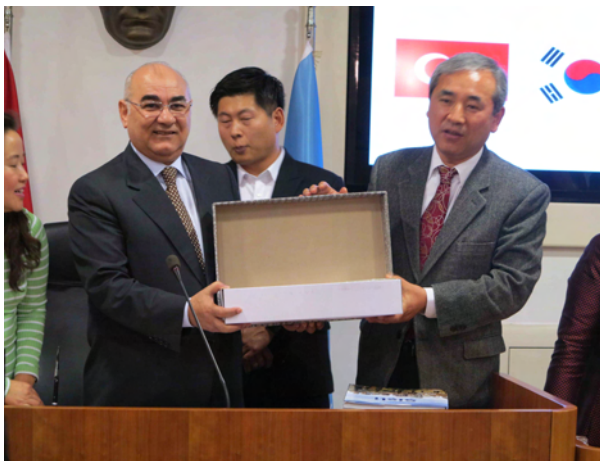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어린이집은 없다. 이슬람 문화권 특성상 대부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며 전업주부가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함

(5) 저소득층 지원방식

o 기초수급자 및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은?

- 지원은 거의 없다. 다만 이슬람문화 전통에 따라 공적부조보다는 지역사회 공통체 의식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로 어려운 이웃을 도움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V 연수 후기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터키를 연수국으로 선정하는데 있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자칫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해외연수하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잘사는 일부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결로 인식되고 있었다. 깨끗한 거리, 말끔하게 정돈된 도시환경, 각종 편의시설 등을 보고와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로 해외연수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일부 연수단이 해외에 나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언론보도도 사라진지 오래다. 그만큼 우리국민들의 의식수준과 태도가 global화되어 있단 얘기다. 단지 나라명만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생각은 기우일 것이다.

경제규모 세계 12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선진국들이 이루어놓은 물질적 토대를 그대로 모방해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중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을 보고 느끼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야할 때이다. 한편 이슬람문화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9.11테러이후 이슬람세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그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세계 50여개국 12억 인구의 종교인 이슬람교에 대한 편견 없는 올바른 이해 없이는 진정한 세계화는 요원할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넓은 영토와 다양한 자연조건, 그리고 고대 동로마제국에서 오스만제국으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여러 민족들이 쌓아놓은 기독교문화와 이슬람문화의 퇴적층이 그대로 남아있는 터키를 이번 연수국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이다.

짧은 기간 최대한 많이 보고 느끼고자 부지런히 다녔지만 5박 8일간의 연수 일정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미흡하나마 몇가지 정리하면서 이번 연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년 3년

서대문구의회 의장 변 녹 진

◇ 터키 약자를 배려하는 이슬람 전통이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이다.

터키는 국민의 98%가 이슬람교도임에도 다른 이슬람국가와는 다르게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치와 종교가 철저히 분리된 나라이다. 알라를 유일신을 신봉하는 이슬람세계에서 타 종교를 인정하는 터키의 헌법은 이슬람교가 원래 관용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실례로 오스만 시대의 이스탄불에는 이슬람교도보다 많은 이교도(유대교도나 기독교)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터키의 많은 이슬람교도는 이교도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가진 것에 경의를 표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사람들이다. 또한 터키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어야한다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이 아직도 지역 공동체의식으로 남아 있어 기계적일 수 있는 공적부조나 사회보험에 의존하는 서구 사회의 사회복지체계를 대신하는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한다.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4대강 개발,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파괴된 환경과 점점 사라져가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사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만들기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터키인들의 남다른 국기 사랑

도시나 시골 어느 곳을 가든 붉은색 바탕위에 흰색 초생달과 별이 각각 그려진 터키 국기를 쉽게 볼 수 있다. 터키인들은 그들의 국기를 ‘아이 일디즈 (AyYildiz)’라 부르는데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월성장기’쯤 된다.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는 물론이고 일반 빌딩이나 가정집 베란다에서도 일 년 365일 상시 국기를 걸어놓은 터키인들의 국기사랑은 유별나다 할 정도로 남다르다. 우리가 방문한 시실리구의회에서도 자국의 국기를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국기를 외국인에게 선물하는 터키인들은 국민의 단결과 독립을 의미한다는 국기를 통해 터키국민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만방

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아니어도 상시 태극기를 게양하는 습관을 길러 평소 나라 사랑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 터키는 세계문화유산의 보고다.

등록된 세계문화유산만도 9개(이stanbul 역사지구, 트로이 유적, 파묵칼레와 히에라폴리스, 크산도스와 렌톤 유적, 사프란볼루 구시가, 핫투샤 유적, 피레메 국립공원과 카파도키아, 디브리이의 대 모스크와 병원, 뱀룻 산)에 이를 정도로 지천에 널린 것이 문화재로 아직까지 방치된 것이 무수히 많고 발굴하는데 만도 수 십년이 걸린 정도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문화재관리는 철저히 원형상태로 보존하고 있다. 각 궁전내부에 있는 장식물은 물론 케텐 및 카펫까지도 오랜 세월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터키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 태양열 온수기

터키를 다녀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터키의 건물에는 고층이건 단층이건 대부분 태양열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다. 터키는 산유국이면서도 전기가 부족하고 기름 값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이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9유로(2,900원), 디젤유는 1.4유로(2,100원)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1.5배, 디젤유는 1.2배정도 수준이다. 저탄소녹색성장시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모범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폐기물 보관 장소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기 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 산유국에 의한 에너지 종속 등이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

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터키의 도시기반시설(대중교통, 공원, 이면도로 등)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터키는 유가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원거리이동에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한다. 특히 이스탄불, 안탈리아, 콘야와 같은 대도시에는 노면전차인 트램이 설치되어 있어 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트램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함께 쓰고 있어 자동차가 막히는 경우에는 같이 막히는 불편도 있고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아 답답함도 있지만 바쁘고 삭막한하기 쉬운 도시생활에 여유를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주요 간선도로에는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어 도심운행속도가 빠르게 향상되었다.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선노선에는 터키식 트램을 설치하여 도시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지중해 휴양도시 안탈리아에는 칼레이치라 부르는 옛시가지가 있다. 옛시가지에 들어서 고대 건물을 사이에 두고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보면 오밀 조밀한 관광기념품 가게들이 나오고 잘 다듬어진 대리석 보도위에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노천카페가 즐비하다. 골목 안에는 바닥을 두꺼운 유리로 만들어 로마유적지를 그대로 볼 수 있게 한 숙박시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고 그 위해 호텔을 지어 여행객들에게 숙박뿐만 아니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 또한 카파도키아 지하동굴에 식당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댄스와 같은 민속춤 공연 등으로 관광수입을 올리는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주민의 생활 공간 속에 들어와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며 주민들의 생업에 도움을 주는 관광 자원 활용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골목길을 빠져나오면 알타리아 최고의 카라알리올루 공원이 나온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에도 많은 시민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애완견과 산책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시공원은 오늘날 보편화된 도시 기반시설 중 하나로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으나 체육시설과 벤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원에 비해 다양한 조형물과 함께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져 있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공원 내에는 동반한 애완견의 배변을 처리할 수 있는 배변봉투와 애완견 사료를 곳곳에 비치하고 있어 공원관리소측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카라알리올루공원내 애완견 배변봉투, 사료함〉